

# 올 불교소설 작품 수 줄지만 작품성 '불만'

고은 **대하소설 '수미산' 단행본**

남지심 **일연스님 주인공 작품 집필**

백금남 **'명당' '유마' 등 장편 3편 준비**

IMF의 거센 회오리 속에서 출판계의 불황을 이길 불자문인들의 작품이 대거 부화(?)를 기다리고 있다. 고은 남지심 한승원 백금남 이 외수 윤대녕 정찬주씨 등 불자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은 소재와 주제도 구도 고승 선 등으로 다양해 읽는 재미를 배가시킬 듯하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집필에 여념이 없는 남지심씨. 범람 그윽한 작품들로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온 남지심씨는 이번 작품에 민족혼을 담아 또다른 대표작으로 삼을 작정이다. 울가를 출간예정인 이 작품은 대장경이야기를 중심으로 일연스님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제목은 아직 미정이다. 지난 3년여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준비해 왔으며 현재 절반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 한승원씨는 96년부터 97년 초까

지 주간불교에 연재했던 고승일화를 책으로 엮어내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구도소설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서있는 길 바로 그길'이라는 의미 즉 정도(正道)를 제시하는 소설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최근 연작소설 (출가)을 발표했던 백금남씨. 왕성한 창작의욕을 보이고 있는 그는 올 한해동안 세 편의 작품을 발표한다. 우선 2월 초순 (명당)이라는 풍수를 소재로 한 소설을 창해출판사에서 출간한다. 이 책에서는 풍수지리설의 개조를 도선스님으로 보고 풍수사상

과 불교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역설한다. 또 인간의 굴곡진 삶을 통해 인간의 고리를 풀어갈 (반지)(가재)와 천축시대를 배경으로 석가모니와 10대제자 문수보살 등이 등장하는 (유마)(가재) 등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 권 모두 3~4권의 장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비늘)로 선소설의 새장을 열었고 최근 (결결)로 변신을 시도한 이외수씨는 요즘 또다른 선소설 구상에 여념이 없다. 불교적 세계관을 담은 (소는 여관으로 들어온

다 가끔)의 작가 윤대녕씨는 현재 세계일보에 7월까지 연재할 (달의 지공선)을 9월에, 하이텔에 연재했던 소설 (나는 카메라)를 내년 초에 각각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또 불교를 소재로 한 중단편 세편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은씨는 본지에 연재했던 대하소설 (수미산)을 5월경 대원출판사에서 책으로 묶어내며, 성철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산은산 물은물'을 법보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정찬주씨도 성철스님 열반 5주기가 되는 11월 연재를 마치고 단행본으로 독자와 만난다.

올해 IMF 한파로 인한 불황으로 불교소설 출간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깊이 있고 재미있는 소재의 작품들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고은



남지심



백금남

## 불심시심 <114>

산에는 배대가 있다

白雲無定心 (백운무정심) 친구를 일정한 마음 없고  
 靑山有奇骨 (청산유기골) 푸른 산에는 기특한 골격 있지  
 相看可樂帆 (상관가락기) 서로 마주보며 주림도 즐길만 하나  
 難與俗人說 (난여속인설)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飯熟菜羹香 (반숙채경향) 밥 익으면 나물국 향기롭고  
 石坐苔相暖 (석좌담상완) 바위 앉으면 이끼담요가 따뜻해  
 舍花鳥不來 (shehwabonae) 꽃을 물어도 새 오지 않으니  
 已識融冰懶 (이식용빙만) 이미 봄 기운도 늦었음 알겠다  
 水流山谷響 (수류산곡향) 물이 흐르면 산은 대답으로 울리고  
 花發洞藏春 (hwabaldongchangchun) 꽃이 피면 고을에는 잠기는 봄  
 紅塵飛不到 (hongchunbido) 세속 먼지는 날아도 못 들어오지만  
 麈尾近隨人 (museubido) 사슴들은 가까이 사람 따르네  
 忘情當事澹 (wangjeongdangjam) 정을 잊으면 문외의 일도 담담하고  
 謀道得貧先 (mododdepinseon) 도를 피하려면 가난 터득이 우선해  
 惟有好詩句 (yuuyuhosigu) 오직 좋은 시 구절 있어  
 春來深眼顧 (chunsaesamgan) 봄이 오자 눈 안에 가득히 펼쳐.

'산거름(山居吟)'이라 제한 시이다. 스님들은 산에 거함이 일상의 삶이기에 '산거름'이란 시가 많다. 이 시는 조선 후기 선과 교의 큰 그릇으로 일컬어진 연담(蓮潭·1720~1799)대사의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 통일신라 금동불 발견

진주 청곡사사... 조탑신앙 연구자료

진주 청곡사 나한전 동편 3층석탑(경남 유형문화재 제5호)에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 6구 등 다수의 유물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해 12월23일 청곡사 3층석탑의 보수작업을 하던 중 하층기단에서 처음 발견한 이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의 소형(높이 4~12cm) 금동불상 2구, 청동불상 2구, 청동보살상 2구 등으로 이 가운데 거의 완전한 것은 1구이며 나머지는 일부가 파손된 상태다. 또 석조불두를 비롯 소조로 된 불두와 나한상두 등도 기단 내부를 가득히 채우고 있었으며, 기단 바닥에 안치된 가사차림의 머리없는 석조상을 중심으로 사납된 소조사자 머리편, '주지00'라고 써여진 조선시대 명문소막새편, 연꽃무늬 수막새편 등도 수습됐다. 기단부내에서 이러한 다수의 유물들이 나온 예는 처음이며, 완형이 아닌 파발 등 파손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발굴현장을 둘러본 진흥섭박사(문화재 위원)는 '석탑 양식으로 보아 고려초기의 불탑으로 보이나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나오고 1938년에 보수했다는 기록이 있어 조탑 당시부터 진단용(鑿用) 등으로 사납한 원형인지 아니면 후대에 추가 안치된 것인지 향후 정밀한 고찰이 필요하다'며 '신라불상과 고려 조탑 불교의식 등을 연구하는 중요한 학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5천년 중국문화 눈길

3월29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문화대전. '그 광대한 중국을 만나다'라는 부제에 걸맞게 중국 5천년 역사를 총망라한 유물 1천2백여점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대유물에서 티베트 유물에 이르기까지 테마별로 6개의 전시실을 조성, 한·중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인케 하고 있다. 테마전시실 중에는 불교문화와 유목문화가 빛어낸 티베트유물이 단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부처님의 초전법륜을 상징하는 동질대법륜 및 사슴을 비롯 대소사 석가모니

## 문화소식

상·티베트대장경·스승과 제자 3인 조각상·불단 등을 통해 티베트 불교 문명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이외에 원·명 양대에 걸쳐 조성된 불을 비롯 남북조시대 조성된 철조관음보살상, 청대의 석가등상 등 다수의 불교미술품이 선보인다.

## 전통문화 공모 작품집

제6회 불교 및 한국전통문화사건 공모대전 작품집이 발간됐다. 대한불교신문사에서 펴낸 이 사진집에



진주 청곡사 3층석탑에서 나온 금동불입상.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는 우수상을 받은 '기원'(박정석 작) '동자승의 피로'(이명남 작) '탈출'(이영희 작) 등 149점의 입상작이 실려 있다.

## 사진자료집 '금강산'

새해초 금강산에 가고픈 마음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사진자료집 <금강산>(도서출판 호영)이 나왔다. '금강산은 부른다'로 시작되는 이 사진집은 현직교사 환관수씨가 15년여동안 수집한 금강산의 비경과 유점사·장안사 등 각종 문화재 사진 2백10컷을 담고 있다. 유람기(해설)와 금강산을 예찬한 옛 시구 등도 곁들여 마치 금강산을 유람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사진 영상의 해' 선포 '98사진영상의 해 선포식이 14일 오전 11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레이저쇼로 문을 연 이날 선포식은 송태호 문체부장관의 선포문 낭독, 임응식 집행위원장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비디오 '사진영상의 어제와 오늘' 상영, 조병화 시인의 축시낭송 등으로 진행됐다. 송장관은 선포문에서 "올 한해동안 사진영상의 21세기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세기 국회문화공무원장, 사진영상의 해 위원 등 관계인사, 시민, 학생 등 5백여명이 참가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상징적 대사와 절제된 연기로 진정함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불교연극 '첫날밤 보름달'의 한 장면.

## 불교연극 '첫날밤 보름달' 마로니에소극장 2월말까지 공연

## "사랑찾기는 결국 구도심"

삼성문예상 동양문화상 월간문학상 많은 문학상을 수상한 불자작가 우봉규씨(38)의 희곡 '첫날밤 보름달(연출 최장지)'이 2월 28일까지 동송동 마로니에소극장에서 공연된다(공연료 오후 7시30분, 금·토·일·공휴일 오후 3시, 7시 30분).

오랜 전통의 극단 신행(단장 전세권)의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공연되는 이번 작품은 절을 배경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구도심을 진실한 사랑찾기에 비유한 불교연극이다.

병에 걸려 부처님을 찾아와 의지하고 있는 남주인공 황강. 그는 배다른 누이동생 인경과의 사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 절에는 음주운전으로 자식을 들뜨키나 죽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노서방, 남다른 사연과 아픔을 갖고 있는 공양주 등 각기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해 서로 갈등을 겪지만 결국 "모든 날은 첫날밤이요, 세상은 보름달처럼 만만아주"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 '타타' '타타'라는 말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으며 달이 차면 기울고 그름 달은 또다시 보름달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상징적인 대사와 절제된 연기로 풀어내고 있다. 이번 연극의 특징은 작가와 출연배우 모두가 특정한 불자들이라는 것. 주인공 황강역을 맡은 배우 박재환씨는 '별빛' '오디너 푸스앙' 등에 출연했던 경력 15년의 베테랑 배우. 여주인공 인경역의 이효임씨는 '동승' '욕망의 샘' 등으로 호평을 받았던 배우로 출연전 모두는 연습기간중 백천사 등 절에서 참선 기도하며 연극연습에 몰두해 왔다. (02)762-8233 <숙>

**예문동양사상 아카데미**  
**98년 겨울강좌!**

예문동양사상아카데미는 동양사상의 연구와 대중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예문 동양사상연구원이 개설하는 강좌입니다. 학술적 풍격을 유지하면서 대중들이 동양사상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요강좌: 주역강좌1-동양적 지혜의 근원을 찾아서...**  
 김승열(본원 원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봉강좌로 이어져 완결되는 강좌의 제1부. 주역의 부호체제와 폐요구조를 이해하여 易理를 궁극함으로써 心身修養과 處世應變, 事業經營에 관한 차원 높은 동양의 지혜를 얻는다.  
 - 1월 6일: 주역이란 무엇인가?  
 - 1월 13일: 주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1월 20일: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자연사상  
 - 1월 27일: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생명사상  
 - 2월 3일: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교육사상  
 - 2월 10일: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윤리사상  
 - 2월 17일: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정치사상  
 - 2월 24일: 64괘 강독과 강의 - 주역의 사회사상
- **금요강좌: 동양철학, 지금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현대인이 직면한 개인적·사회적 삶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동양적 대안을 찾아가는 강좌. 우리 사회에 충만한 '우리 것 찾기'의 열기를 수용하되, 차분한 시선으로 동양사상의 현대화를 향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 1월 9일: 왜 다시 동양사상인가 - 이승환(고려대 교수)  
 - 1월 16일: 동양의 이상적 삶 - 한홍식(철학박사)  
 - 1월 23일: 동양의 형이상학 - 유현준(안동대 교수)  
 - 1월 30일: 동양의 여성관 - 이숙인(철학박사)  
 - 2월 6일: 생대문제의 동양적 대안 - 유현준(안동대 교수)  
 - 2월 13일: 동양의 눈에 비친 자유민주주의 - 박헌재(철학박사)  
 - 2월 20일: 유학은 자본주의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 홍원식(계명대 교수)  
 - 2월 27일: 유가적 전통에서 본 동양의 정권론 - 이승환(고려대 교수)

◎ 매 회 100분(오후 7시 - 8시 40분) 강의료 진행  
 ◎ 각 강좌별 수강료: 100,000원  
 ◎ 수강료 납입구좌: 국민은행(093-24-0317-712 종현시)  
 ◎ 문의 및 접수: 925-5914 (담당: 박진영)

순수한 경명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祕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범종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較善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榮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諧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정품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수강생 모집(사경은 해와 용이 있고 법과 태가 있습니다. (봉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강생 특별지도

※ 반야심경 사경 및 서예특별지도(초심자 환영, 동선도 가능)

● 선화순 한정본(품)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歷史는 바뀔 수 있어도  
 傳統儀式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가전도

천도제 49제 예수제 영산제 수목제

**"사찰에 禪은 필수품입니다."**

시연(侍演)은 각종 제(齋)를 배풀고 전통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엄의식용구로써 전통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수공예품으로 제작하였고 원목을 사용한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3년 조립형의 장엄한 예술적 작품으로 이등시 편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무림불서경역사  
**佛美院**  
 (주)예성기획  
 서울특별시 龍山區 文禮洞 17-1 신화빌딩 3층  
 TEL:(02)704-5070(대)704-8850~1

부처님과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 **체탈도첩 공고** ●

- 성명: 남기수
- 법명: 금암
- 주민등록번호: 460903-1634714
- 승번: 081-096

상기자는 태고총림 사구사부 제 35조 1항·동조 4항·동조 7항·동조 11항에 의거하여 1998년 1월 7일 긴급전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체탈을 결의하여 종단에 상신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함.

1998년 1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 **직인무효 공고** ●

하기 직인을 1997년 9월 1일부로 무효공고함.

**향림사 주지 김명성**